

‘김정일 전문가’의 북한과 김정일에 대한 모든 것

《김정일 리포트》 손광주 지음 | 바다출판사 | 432쪽 | 값 15,000원



얼마 전까지 북한은 ‘베일에 싸인 인물’ 김정일이 지배하는 ‘베일에 싸인 나라’였다. 특히 김정일에 대한 평가는 양 극단을 오갔다. ‘과격하고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 ‘술 먹고 기쁨조와 놀아나는 사람’ 등 아예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거나, 북한 노동당이나 일본 조총련계를 통해 밀도 끝도 없이 ‘대단한 인물’로 소개되었다. 남한에 사는 우리는 대체로 앞의 평가를 믿는 편이었지만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까지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김정일의 모습은 뜻밖이었다. ‘여유 있고 당당하며 솔직담백한 인물’, 언론들은 았다튀 새롭게 드러난 김정일의 모습을 지면과 전파를 통해 소개했다.

하지만 《김정일 리포트》를 쓴 통일정책연구소 손광주(46) 연구위원은 이러한 ‘김정일 쇼크’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김정일 특유의 상대를 끌어들이는 심리전과 연출능력이 발휘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손 연구위원은 8년간 50여 명의 북측 주요 인

사(북한 관련 인사 150여 명)를 인터뷰해 국내외 최초로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일의 실체를 밝혀낸 몇 안 되는 김정일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송 연구위원은 북한, 즉 현재 김정일 체제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시작으로 스탈린 체제와 김일성 체제를 거쳐 지금의 김정일 체제까지 오게 된 사상적 큰 흐름, 즉 ‘정치적 백그라운드’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에 살았던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적이고 현실적 각도에서 북한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북한을 연구하는 젊은 학자들의 단점은 이러한 근본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정치적 액션을 취하면 본질을 간과하고 현정세만 놓고 해석하려 든다는 거죠.”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의 ‘미녀’ 응원단이 비에 젖은 김정일 플래카드를 ‘모셔간’ 사실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상식선의 충성심이라기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 휘장, 수령의 초상화를 게재한 출판물, 수령을 형상화한 미술작품, 수령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구호 등을 정중히 취급하고 또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10대 원칙’ 3조 6항에 충실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수령론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인간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부모로 받은 육체적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이 준 사회정치적 생명입니다.

그러니깐 너희들은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고 수령에 대한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봉건 왕조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송 연구위원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게 결국 현 북한체제의 본질인 수령절대주의와 군국주의 두 축을 무너뜨리고 북한체제를 민주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주변국에서 특히 남한이 주도가 돼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북·중·러, 특히 북한과 중국의 동맹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미 세계화 흐름을 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멀어질수록 북한은 생존을 위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구 13억의 중국, 세계 최대 땅덩어리 러시아, 최고 경제력 일본, 슈퍼파워 미국 이렇게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분단체제는 결국 그렇지 않아도 버거운 상대들이 두 발로 열심히 뛰어가는데 우리만 2인3각으로 뛰고 있는 꼴입니다. 민족의 발전과 인류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분단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송 연구위원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일반 대중들이 북한문제의 본질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사상의 중요성에 대한 저술과 그리고 북한의 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어떤 로드맵을 가지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겨레**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